

# 경주 불일암 지호스님 원력세워 '가정폭력 상담소' 개설

### 교수·의사·신부등 상담...청소년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청소년문제를 안타깝게 여겨 관련교육 및 수련기관을 찾아 다니며, 청소년 상담요원을 양성하는 등 열정을 쏟아온 비구니 스님이 가정폭력 및 청소년 상담소를 개설했다.

경주시 불일암 주지인 지호스님은 12일 성타 불국사 주지스님, 이원식 경주시장, 최규수 경주시장 등을 비롯한 각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성건동 176-8 경주 보훈지청 옆 건물에 '경주 가정폭력 및 청소년 상담소'의 문을 열고 상담을 시작, 하루평균 5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찰에서 주부 신도들을 대하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된 지호스님은 가정폭력상담을,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상주씨(36)는 청소년 상담을 맡았다.



지호스님

또한 종교를 초월해 정성해 신부(성조동성당), 김준철 목사(셋별교회)를 전문상담가로 초빙했으며 동국대 김용택(사회복지학) 교수 등 교수진과 변호사, 동국대 경주병원 정신과의사들도 참여해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스님은 "가정폭력은 단순히 매 맞는 주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



지호스님은 경주시 성건동에 12일 가정폭력 상담소를 개설했다.

성원 전체의 문제이자 사회문제"라면서 "앞으로 심터를 개원해 가정폭력으로 살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회에 힘쓰겠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10여년간 가정법회를 가진 인연으로 8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영남대의료원 법당 및 영천 미아정신병원 종교상

담, 이·미용, 복음 자원봉사 등 활발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 온 지호스님은 상담소 개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복지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가정폭력 (0561)749-1366, 청소년 상담 (0561)749-1318.

이원호 기자 (yhlhe@buddhopia.com)

## 우리철 불사 서울 원각사

### 소년가장·노인 요사채 건립

#### 대웅전·명부전도 추진 불사위해 1만배 기도

서울 관악산이 서쪽으로 뻗어 내려가다 도심과 만나는 곳에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아담한 사찰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남현동에 위치한 원각사(주지 환형)가 바로 그곳. 2001년까지 진행되는 원각사 종합불사의 첫단계는 대웅전 건립이다. 원각사는 2년전부터 협조하고 낙후된 대웅전을 철거하고 천막법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다.

원각사는 현재 7백50여명의 대지에 35평 규모의 대웅전 종합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사 불이 봉안될 대웅전은 자연친화적인 법당 건립을 위해 국내 산 목재만을 사용하고 있다.

원각사는 금년말까지 대웅전 불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요사채 명부전 산신각 등 2단계 불사에 착수한다. 이 불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요사채이다. 지하층 지상층 규모로 건립되는 요사채는 다른 사찰과 달리 방사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독거노인

를 위한 후원해오고 있는 7명의 소년소녀가장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 물론 지역 불우독거노인들 가운데 집이 없는 노인들도 절로 모실 계획이다. 이 요사채 건립은 주지스님이 복지사업을 건립하기 위한 예비단계이다. 소년소녀가장과 불우독거노인들을 요사채에 모시면서 경력을 쌓아 향후 어린 이집, 유치원, 양로원이 들어설 수 있는 복지를 건립하는 것이 스님의 가장 큰 원력이다. 스님의 원력이 요사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원각사는 종합불사를 진행하면서 신도들의 신행지도에도 적극적이다. 비록 천막법당이지만 전법과 신행의 열기는 비법천막안의 찜뚱두위를 무색케한다.

원각사는 원만한 불사회화를 위해 28일부터 1만배 기도에도 들어간다. 또한 오는 9월10일까지 부처님신사리천경법회를 열고 있다.

주지 환형스님은 "사찰이 신도들의 기도 신행 등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대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새 천년에 불교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김준근 기자 (gajma@buddhopia.com)

## 초의선사 생가복원 개방

### 27~31일 무안 연꽃축제 맞춰

#### 추모비·녹차단지도 완공

초의선사 생가 제3회 무안 연꽃축제 개막과 함께 27일 첫 개방된다.

무안군은 조선 후기 높은 인품과 다승으로 널리 알려져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추앙을 받아온 초의선사의 덕을 기리기 위해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생가복원을 해왔다.

1만5천평부지에 생가 및 추모각 추모비 기념전시관 다도체침관 청소년수련관 등 7종의 건물을 2000년 말까지 건립하는 무안군은 현재 1차로 생가와 추모각 추모비 녹차재 배단지 등을 완공했다.

무안군청 문화관광과 배홍석씨는

"초의선사는 시 서화 다 선에도 뛰어나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훌륭한 석학들과 폭넓게 교류하여 우리문화사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스님이다"며 "초의선사의 열을 되새기고 녹차단지를 통한 녹가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 3회 무안 연꽃축제가 27일부터 31일까지 전남 무안 회산방죽에서 열린다.

무안군 일보를 복음리에서 열리는 이번 연꽃축제는 종물갈놀이, 방생연 등용행사, 연향차 봉차의식, 연꽃춤, 연꽃장사 씨름대회, 품바공연, 법요식, 방생연등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 전북불교 21세기 기획단 만들자

### 전북불교연간담회

전북불교연합회(회장 도영)는 11일 전주 목원예식장 백악관에서 도영(금산사 주지) 지광(중앙총회의 원)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 40명과 불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전북불교발전을 위한 연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기초발언을 통해 "그동안 전북불교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미래에 대한 불교 내부의 대책이나 준비가 덜 된 까닭에 타종교에 비해 역할이나 지평도가 밀리고 있다"며 "2000년과 21세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무(17교구 신도회장) 성광문(군산불교신도연합회장) 고정관(대불청 전지구회장) 김종업(전주 완산구청장) 임철중(공무원불자 전북연합회장)씨 등



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불교적 조적력을 다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승가와 재가가 함께 모여 불교기획단이나 21세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진로를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종파초월 화합해야"

### 종교인 평화회의 8·15 강연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는 13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광복 54주년 기념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불교를 비롯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유교 등 6개 종교 지도자가 참석했다.

천도교 동구 교구장 김성수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각 동단대표의 기념사, 3·1정신 현창 선인문 낭독과 김지하 시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기념사를 통해 덕수스님은 "3·1 운동 당시 33인의 민족지도자는 거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들이었다"며 "중단과 종파를 초월 화합된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정신회복 시민운동연합 대표인 김지하시인은 "3·1정신의 상고사적 고찰과 현대적 계승이라는 주제강연에서 "현실 개선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후 말살된 민중정신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족적 인 교육, 문화개혁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캬'에 한국어 알리자

### 전북불교회관 교과서 보급

전북불교회관(원각 주지)은 캬보디어에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과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내전을 종식하고 민주사회로 발돋움 시도하고 있는 캬보디어는 최근 외국어 선호도에 있어서 한국어가 영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불교회관은 1차로 관광 가이드와 상인들에게 보급할 초등 학교용 교과서 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0652)251-4942

## 삼광사 초심자 교육

### 사찰예절 의식등 지도

삼광사(주지 덕수)는 천태종에서는 처음으로 새롭게 입교하는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매일 기도주간 중 5일을 정하여 삼광사 안내, 천태종요, 기도요령, 사찰예절, 기초의식과 구인사 참배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천미희 기자

## 조동종 운파종정 입적



조동종 종정 운파 스님이 14일 오전 9시 용천사에서 입적, 16일 오전 8시 용천사에서 영결식이 거행됐다. 세수 73세 법랍 37세. 운파스님은 1962년 화엄사에서 경안스님을 은사로 출가, 66년 법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으며 73년 용천사를 창건했다. 1983~86년 법화종 감찰원장, 1992년 조동종 제1세 종정에 추대됐다. 이경숙 기자

## 해인사 사찰음식 관광상품화

### 합천군, 전문식당 지정 21종 개발

오부치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방한했을 때 해인사에서 맛보았던 전통사찰음식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돼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오부치총리 방문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인관광객을 위해 구절판, 탕수이, 탕평채, 곤약잡채, 더덕구이 등 전통사찰음식 21가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전통사찰음식 전문가인 선재스님을 초청해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이틀동안 사찰음식전수 강습회를 개최한데 이어 고바우 부산 감로

향원식당 등 해인사 인근에 있는 8개 음식점을 전통사찰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이들 음식점에는 오부치총리가 해인사에서 식사하는 장면과 팔만대장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액자가 메뉴판과 함께 걸려있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식단에는 콩이,포도,석이버섯등을 오이 당근 무등과 함께 밀전병에 싸서 먹는 구절판 등 21가지 사찰요리가 그림과 함께 한글과 일본어로 소개되어 있다. 풀코스 2만 원선. 이원호 기자 (yhlhe@buddhopia.com)

전통사찰요리는 고기와 오신채(파 마늘 생강 부추 흥거), 인공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맛이 깨끗하고 담백한것이 특징으로 특히 옛날 임금님들 들던 별식 탕평채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고바우식당 주인 이종호씨(57세)는 "일본인관광객은 물론 관공서에서 외국인 접대를 위해 찾는 분들이 늘어나 매출이 경증뛰었다"고 말했다.

해인사를 찾는 외국인도 7월말 현재 4천8백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천3백44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오부치총리가 다년간후 일본인관광객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영덕 지수를 알아가는 출판사 **경현암사** 서울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801명 ID hyunam 원리안 lawhyun E-mail lawhyun@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sophie.co.kr \*전화주문 도서목록을 보내드리고 최우선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 영혼을 울리는 샘물 같은 고전

### 장자

오강남 풀이 / 값 12,000원  
『장자』의 심오한 세계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해석한 풀이서.

### 도덕경

노자 원전 오강남 풀이 / 값 9,800원  
시치림 장언처럼 들려주는 81편의 짙막한 글 속에 진정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도의 길, 진리의 길을 담고 있다.

### 명심보감

안병욱의 해설 / 값 9,800원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여 주듯이 생활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조목조목 담고 있는 修身書!

### 채근담

홍자성 저음·조지훈 역주 / 값 9,800원  
자연과 마음, 수선과 성찰, 세상 사는 법도에 관한 금과옥조와 지혜를 담은 책.

### 唐詩

이원식 역해 / 값 12,000원  
당 비파의 울림처럼 우리 가슴을 애뜻하게 적시는 唐詩의 운율과 뜻을 우아하고 유려한 우리말로 재현한 唐詩의 완벽한 고전!

### 莊子

인동림 역주 / 값 25,000원  
인간이 숙명적으로 짊어진 부자유의 굴곡에서 해탈을 추구하는 장자철학. 전편 원역, 상세한 주석!

### 퇴계선집

이항 저음·윤사순 역주 / 값 15,000원  
성리학의 최고봉인 퇴계의 인간과 사상의 전모를 밝히는 국학서. 『自省錄』, 『論四端七情書』, 『聖學十圖』 수록!

## 백암록 신간

인동림 역주 / 값 18,000원  
역대 고승들의 기상천외한 일화를 화두로 한 선문(禪門) 최고의 책!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관을 장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유려한 번역, 상세한 주석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불교대전

만해 한용운 편찬 / 이원식 역주 / 값 19,500원  
만해 한용운 선생이 편찬한 불교 경전의 정수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방대하고 어려운 대장경에서 깨달음이 투철한 눈으로 엄정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보게 한 역작!

### 불교성전

석해은 옮김 / 값 9,800원  
부처님의 생애, 가르침, 정진(精進), 법우(法友) 등 네 장으로 나누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읽을 수 있게 한 성전.

### 불교 개론

미쓰야 후미오 저음 / 이원식 옮김 / 값 6,500원  
불교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이론서.

### 반야유마경의 지혜

이시다 미즈미로 저음 / 이원식 옮김 / 값 5,000원  
공(空) 사상, 실천 이념, 사회와 인간 관계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 화엄경의 세계

다마키 고시로 저음 / 이원식 옮김 / 값 6,500원  
대승불교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에 이르는 안내서.

### 아함경 이야기

미쓰야 후미오 저음 / 이원식 옮김 / 값 6,500원  
붓다가 여러 사람과 나는 문답과 실천적 가르침.

### 미란다 왕문경

이시카미 겐오 저음 / 이원식 옮김 / 값 5,000원  
그리스 왕 미란다와 승려 나가세나의 대화 기록.

### 열반경의 세계

다무라 오시로 저음·이원식 옮김 / 값 5,000원  
붓다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 경과를 서술하고 죽을 너머 영원의 문제를 밝힌 책.

### 법구경

김립진 옮김 / 값 9,800원  
네 가지 품에서의 해탈과 인류 구제를 부르짖던 붓다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

### 부처님 말씀

성명 저음 / 값 15,000원  
중생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려준 아함경 이야기.

### 붓다

후사고지 시네이초 저음·박경훈 옮김 / 값 9,800원  
가비라 성(城)의 왕자에서 보리수 아래 고행을 거쳐 해탈, 열반, 극락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전기.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인간 붓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